



발행인 : 김현례 학과장 | 편집인 : 김진희 교수, 학생회 : 이하늘 학생
발행처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발행일 : 2026년 2월



학과 소개

학과 소개

우리 간호학과는 조선대학교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기초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1969년 4년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호남 지역 대표 간호교육기관이다. 입학 정원 30명으로 신설되어 1973년 50명, 2009년 70명, 2010년 80명으로 증원되었다. 우리 학과는 1973년 석사과정, 1999년 RN-BSN 과정, 2004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5년 인증을 획득하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간호전문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저희 학과는 간호학사 동문 3,603명, 석박사 319여명의 대학원 동문을 배출해오고 있으며, 이들은 보건의료계, 교육계 및 산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 간호사, 전문 간호사, 교수, 보건교사, 산업보건 관리자, 간호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목적

조선대학교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인간 존엄성 사상에 기초한 간호의 과학성, 전문성을 함양하는 전인적 간호교육을 통하여 대상자의 치료와 돌봄 그리고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 목표

1. 인간생명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화하고, 윤리적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는 태도를 계발한다.
2.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적 간호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3. 간호상황에 적합한 임상추론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적 간호수행 능력을 기른다.
4.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관리 역량을 함양한다.
5. 다학제적인 전문지식을 간호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 간호의 질과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 보건의료팀과 협동하는 간호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습성과

- PO1. 간호학문과 다학제적 연구기반 지식을 간호 실무에 적용한다.
- PO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임상추론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수행한다.
- PO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집단의 건강을 관리한다.
- PO4. 인간존중의 태도와 법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책임감 있는 간호를 수행한다.
- PO5. 안전과 질 향상의 원리를 간호수행에 적용한다.
- PO6.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 PO7. 개인과 전문직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개발한다.
- PO8.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학과 소식

◎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5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25년 4월 11일 의과대학 2호관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3학년 91명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앞서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나이팅게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의식이다. 이번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대상자 돌봄의 주체로서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나이팅게일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 취업설명회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5 간호학과 취업설명회」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년 5월 13일 의과대학 2호관 1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설명회는 간호 분야의 진로 이해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간호사로서 첫 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병원에



서 실제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강과 병원 취업 준비 과정 및 현장 요구 역량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향후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5 간호학과 취업설명회

일 시 2025. 10. 31 (금) 11시 30분 ~

대 상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 (관심 있는 학생 누구나)

장 소 의대 2호관 1층 한마음홀

내 용	11:30 ~	13:00 ~
	간호사로서 첫 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조선대학교병원 간호팀장 김미숙
	병원에서 실제로 원하는 인재상	전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최명미
	간호학 전공 후 공기업 취업하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김지영
	슬기로운 신규간호사 생활을 위하여	연대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최재형

점심제공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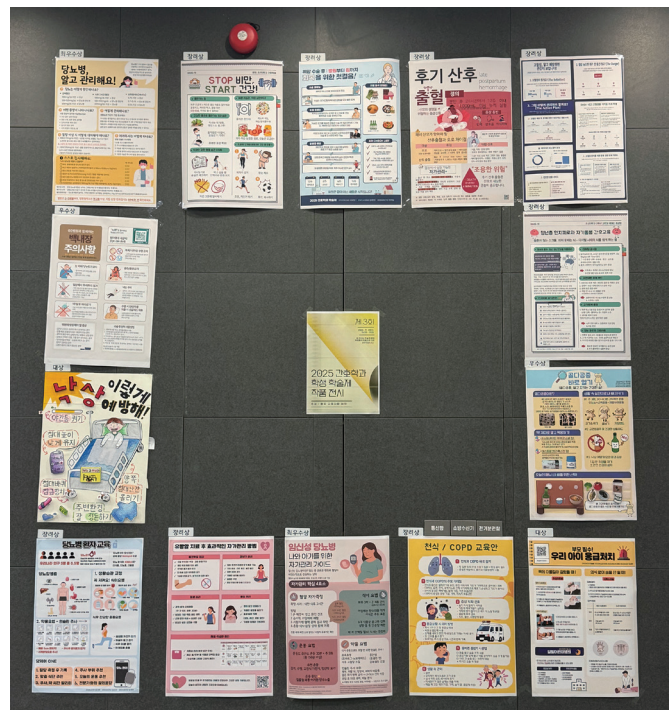
◎ 학술제

2025 간호학과 학술제가 2025년 11월 5일 의과대학 2호관 1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술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김윤신 교수가 '검사의학, 그 영역 확장: 검시조사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2부 학생 발표에서는 '환자교육 자료개발'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학생들은 간호 실무와 연계된 교육 자료를 직접 기획·제작함으로써 전공 지식의 적용 능력과 창의성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상자 명단]

학년	수상명	수상자	주제
3학년	대상	이예진, 한지민, 김슬빛, 김세한	아동 응급상황 대처
	최우수상	박성연, 고은초, 성아영	임신성 당뇨 임부관리
	우수상	최지호, 김현지, 이지원	골다골증 관리
	장려상	최지혜, 박민주, 박소희	임신 말기 산후 출혈 관리
		김명재, 조제훈, 허건, 박명우	유방암 환자 관리
		정민경, 김은지, 서수연	천식/COPD 관리
		김예은, 정유채, 이가원, 엄지	청소년 비만 관리
		손동인, 인시경	고혈압 관리
2학년	대상	나한비, 양지윤, 김민지	낙상예방관리
	최우수상	서가은, 백아엽, 송예진	당뇨관리
	우수상	백수현, 이서윤, 박세은, 조경희	백내장 노인환자 관리
	장려상	이재영, 이하늘, 김대영	위암 환자 관리
		김민교, 백대신, 조성영	정보화 시대 청년의 인지피로 관리
		임세연, 김다희, 김소단	당뇨 관리



대학원 소식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2025년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10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이 입학하였다.

◎ 2025년도 학위 수여자 현황

학위	학위수여일	성명	논문 제목
석사	2025.02.25.	김지영	어지럼증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21) 이용
	2025.08.22.	신설아	임상간호사의 공감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 역량,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이 환자중심간호에 미치는 영향
	2025.08.22.	문예지	미숙아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과 퇴원준비도와의 관계 : 간호사 지지와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교수 소식

◎ 김현례 교수

간호학과 학과장(2024년 3월 - 2026년 2월)

◎ 문소현 교수

간호학과 학과장(2026년 3월 - 2028년 2월)

◎ 김진희 교수

대학원 간호학과 주임교수(2024년 9월 - 2026년 8월)



간호학과 동창회 소식

- 2025.02.19. 간호학과 졸업식 참석 & 동창회장상 및 선물 전달
- 2025.04.23. 간호학과 교수, 학생 간담회 & 2025 상반기 동창회 장학금 수여
- 2025.05.29. 각 기수 이사 모임
- 2025.10.17. 간호학과 4학년 국시 응원 & 동창회 홍보
- 2025.10.17. 조대병원 간호부와 간담회
간호학과 교수님과 간담회
- 2025.10.21. 증경회장단 모임
- 2025.11.27. 동창회 정기총회 & 26대 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



상반기 동창회 장학금



각 기수 이사 모임



간호학과 4학년 국시 응원 & 동창회 홍보



학생 소식

◎ 간호학과 비상대책위원회

2026년 1월 1일부터 제39대 간호학과 비상대책위원장에 이하늘, 부위원장에 최지호 학생이 선출되었다. 두 학생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시기까지 학과 운영과 학생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봉사할 예정이다.



◎ 간호학과 학생회 활동

2025년 한 해 동안 간호학과 학생회는 개강총회, SNS 이벤트, 간식 이벤트, 크리스마스 포토존 및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왔다. 이러한 학생회 활동은 학과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며, 간호학과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다.



◎ 간호학과 학생학술제

2025년 간호학과 학술제는 11월 5일 한마음홀에서 개최되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간호연구기획 역량 강화를 목

적으로 환자교육자료 제작을 주제로 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며, 실제 간호 현장에서의 교육적 역할과 전문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윤신 교수님 특강

2025년 11월 5일 한마음홀에서 김윤신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검사의학, 그 영역 확장'을 주제로 검시조사관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다루며,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보건의로 분야에서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2025년 케어리빙랩 성과공유회

간호학과 동아리 나눔과 윈스는 동구청과 심리상담학과, 의예과와 협력하여 어르신 방문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 되어 드리는 정서적 지원과 함께, 간호 전

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건강 사정을 도우며 지역사회 간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있다.



◎ 간호학과 동아리 활동

1) 간호학과 '나눔'동아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이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과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나이팅게일 서서식과 떡식 등 학과의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며, 선후배 및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2) 간호학과 동아리 '윙스'는 광주 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환경 보호 캠페인, 지역축제 지원, 자원봉사 교육



이수,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시민의식 함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필리핀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

2025년 2월 4일에서 10일까지 간호학과 학생 8명은 필리핀(마닐라 & 보라카이)에서 국제보건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국제보건 관련 기관 및 대학, 병원 방문, 지역사회 보건활동과 보건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 국제보건간호 역량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소식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후기

2026년 졸업생 정은선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삼성서울병원 희망Dream 인턴십 4회차에 참여하였고 현재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인턴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후배분들께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간호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BIG 5 병원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간호 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인턴십은 주로 동계 때 진행되며, 참여 가능 학교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후 학교 안내에 따라 서류, 자기소개서, 교수님 추천서 등을 제출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인턴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로 진행되며, 회차당 약 40명의 간호 학생이 전국에서 참여합니다. 세부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병원 및 간호부 소개, 간호 단위 팀장님과의 대화, 3일간의 간호 단위 실습, 마지막 날 그룹 발표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회가 된다면 삼성서울병원 인턴십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랑 내면적인 이유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인턴십 평가 우수자는 신입 간호사 채용 시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팀장님과 대화 시간뿐만 아니라, 간호 단위 실습할 때도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순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 대담, 감사 표현, 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삼성서울병원 인턴십을 하면서 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자동약품출장비나 매직 카트처럼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스템을 직접 보고, 간호사 경력 개발 지원 체계와 케어기버 문화를 설명 들으며 '간호사를 정말 고민하는 병원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귀찮음과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들은 제게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인턴십은 단순한 스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턴십에 참여해서 좋은 경험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턴십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인턴십에 참여하지 못하면, 삼성서울병원 신입 간호사가 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턴십 참여가 반드시 채용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축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준비해



학생 소식

캐나다 어학연수

20224232 김서진

2025년 1월 겨울, 저는 한 달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간호학과에 재학하며 학업과 실습에만 몰두하던 일상 속에서, 해외에서의 한 달은 제게 큰 도전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앞으로 더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해외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용기와 현실적인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처음으로 일본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다음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하고, 언젠가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생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학연수는 '꿈'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준비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비행기표 예약, 비자 신청, 레벨 테스트, 홈스테이 관련 설문 작성 등 하나하나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처음이라 막막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해외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첫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해외에 한 달 동안 머무르는 것이 처음이었고, 가족과 이렇게 오랜 기간 멀리 떨어지는 것도 처음이어서 출국 후 약 일주일간은 시차 적응과 함께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과 통화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내렸고, 바닥에 10cm 이상 쌓이는 날도 흔했습니다. 처음 2주는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지만, 이후 심한 목, 코 감기에 걸리면서 남은 2주는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편도가 약해 목감기에 걸리면 특히 힘든 편인데, 하필 그 시기에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초기에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의료 접근이 쉽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감기는 한국에 돌아온 후까지 약 두 달간 이어졌고, 급성 부비동염까지 겪으며 '머리가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는 상비약을 종류별로 충분히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 기수의 어학연수 숙소는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홈스테이 가정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의 생활 성향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에는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대한 선호, 주류를 즐기거나 흡연하는 가정

학생 소식

에 대한 의견, 지하 또는 지상 방 선호, 침대 사용 여부 등 비교적 세부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주류를 자주 즐기거나 흡연하는 가정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보다는 지상 방을 희망했고, 침대가 있는 방을 원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홈스테이가 배정되었지만, 실제 생활은 설문만으로는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배정된 가정에는 어린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는 사전 설문에서 제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도 괜찮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첫째 아이가 다소 활발해 조용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워낙 사랑스럽고 귀여워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 주었는데, 그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만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일상은 홈스테이 생활을 더욱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고, 현지 가정의 가족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편은 아니어서 버스를 이용해 환승하며 통학해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해가 빨리 지는 편이라 귀갓길이 어둡고 낮설게 느껴지기도 했으며, 실제로 첫 등교 날에는 길을 헤매며 두려움을 느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현지 학생들의 일상에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생활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환승하며 학교를 오가는 일상은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낯선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테이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저를 잘 존중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개인 시간을 배려해 주었고, 생활 방식이나 문화 차이를 강요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상층 방을 사용하며 홈스테이 가족과 바로 옆방에서 생활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어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차를 타고 근교로 함께 이동하며 캐나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블루마운틴 리조트에 함께 방문해 겨울 액티비티를 즐긴 경험은 캐나다의 자연

과 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단순히 숙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현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교류하는 홈스테이의 장점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숙사 대신 홈스테이를 선택하게 된 점 자체가 이번 어학연수의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캐나다 현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뿐 아니라 가족 문화와 생활 방식, 가치관까지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지에서 살아본 경험'에 가까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통학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캐나다 현지 친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어학연수가 끝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홈스테이 생활과 일상 속 이동 과정이 단순한 생활 수단을 넘어, 사람과 문화를 직접 연결해 주는 또 하나의 장점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학생 소식

학교 수업은 캐나다 현지 대학인 켈프대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대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과 책상, 의자 등 시설 전반이 비교적 아담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험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다만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근방에 위치한 토론토에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기차표와 숙소를 직접 알아보고 예약해 이동하며, 여행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숙소에서의 짧은 일정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지만, 서로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교실 밖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학연수가 단순한 수업 참여를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었지만, 항공권과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개인 부담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개인 자격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과 비교하면, 재학 중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경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가치보다, 직접 해외에서 생활하며 얻는 경험과 시야의 확장이 훨씬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와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생활하며 의료 시스템과 생활 환경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국의 의료 환경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로만 들어왔던 나이가가라 폭포를 직접 방문하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자연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캐나다는 생활의 터전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여행으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기억에 남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한층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망설이고 있는 학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국제 교류처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며 정보를 얻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경험이 앞으로 더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데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전기금

◎ 발전기금 납부안내

조선대학교 비전 '백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선도 대학'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납부를 통해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와 발전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약정서 내 기부용도에 '간호학과 발전기금'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자세한 안내 사항과 약정서 양식은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 <https://www3.chosun.ac.kr/fund/index.do> 에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금 납입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약정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기부정보를 작성하시고 아래 입금은행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 신한은행 : 100-036-638130

우편이나 이메일 기부금 납부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웹사이트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우 편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본관 2층 홍보팀
- 이메일 : fund@chosun.ac.kr

직접 방문 납부

우리 대학 대외협력처 홍보팀(본관 2층, 2163호)을 방문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기금을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전 화 : 062-230-6234

